coupang newsroom

‘Wow the Worker’ 쿠팡 안전문화 리더 300명 양성

2026. 3. 13.

쿠팡의 모든 안전보건은 리더인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쿠팡 EHS가 2025년 처음으로 ‘EHS 리더십 워크숍’ 론칭한 이유입니다. “왜 나에게 EHS(환경·보건·안전)가 중요한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 300여 명의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2025년 마지막 교육인 13번째 EHS 리더십 워크숍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이틀간 쿠팡 선릉사옥에서 열렸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쿠팡이츠(CES),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등 각 사 EHS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이번 회차에는 CFS EHS, North의 Marcus(고만석) 님, South의 LJ(장지수) 님, CLS EHS, South의 David(이석훈) 님이 퍼실리

테이터가 되어 세션을 이끌었다.

“쿠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우리”

이번 워크숍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교육의 설계자부터 운영자까지 모두 ‘쿠팡 구성원’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RM&E Strategy & Development 팀은 23명의 EHS 전문 사내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쿠팡의 리더십 원칙을 시시각각 변하는 물류 현장에 가장 잘 이식할 적임자는 결국 내부 전문가인 우리 조직 안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CFS EHS South, LJ(장지수) 님이 EHS 리더십 워크숍 퍼실리테이터가 되어 세션을 이끌고 있다.

CLS EHS South, David(이석훈) 님이 EHS 리더십 워크숍 퍼실리테이터가 되어 세션을 가이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쿠팡 EHS 리더십 워크숍 운영의 원팀이 되어 퍼실리테이터로 뛰었고요. 그 결과, 2025년 한 해에만 쿠팡의 안전문화를 이끌어갈 ‘정예 리더’ 300여 명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EHS는 근로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일”

라이언 브라운 CFS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에 직접 참여해 교육생들을 격려했습니다. EHS 리더의 역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

해 라이언 님의 메시지를 일부 공유합니다.

라이언 브라운 CFS 대표이사가 'EHS 리더십 워크숍'에서 각 사 EHS 리더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EHS는 누군가를 깊이 배려하고,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쿠팡으로 출근하는 수많은 동료가 안전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하루'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거둔 최고의 성공이기도 하죠.

우리의 미션은 크게 4가지입니다. 중대 사고를 예방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지키고, 법적 기준을 넘어선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우수한 인재와 함께 최고의 EHS 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근로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들이 한 달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쿠팡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을 때, 그때 나는 안전을 보장받고 존중받으며 일했던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HS 리더십 워크숍'에 참여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쿠팡이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EHS 직원들.

이날 함께 모인 24명의 교육생들은 이틀간 ▲ Why Does EHS Matters? ▲ Company Vision & Strategies ▲ Leadership in EHS ▲법규 동향 및 감독 수검 ▲ Personal Action Plan ▲ Risk Assessment ▲ Problem Statement ▲ Communication 등 밀도 높은 커리큘럼을 소화했습니다. 또 쿠팡 EHS 리더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미션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CLS EHS West Busan Area, Health Manager, Amy(정언영) 님은 교육을 마치며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 EHS 리더가 가져야 할 특별한 덕목이 있는지 라이언 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근로자들이 EHS 담당자들에게 뭔가 불만을 얘기하거나 요청했을 때 Yes나 No로 대답하기보다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요. 그것이야말로 '리더가 현장에서 차별화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EHS의 고객은 우리의 동료, 'Wow the Worker'를 위하여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RM&E Strategy & Development 팀의 Justin(정태현) 님은 "워크숍에 참여한 리더들은 스스로 안전 문화를 일구는 주인공이자, 안전에 대한 열정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든든한 롤모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의 리더십 원칙인 'Wow the Customer'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시작과 끝이 '고객'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EHS 리더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고객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물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동료, 근로자들입니다.

동료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쿠팡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쿠팡 EHS는 'Wow the Worker'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쿠팡을 가장 안전한 물류 현장의 표준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